

노인의 죽음 준비교육이 죽음의 불안도에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

고 승 덕* · 김 은 주* · 김 영 규**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 **대전산성감리교회

〈 목 차 〉

- I. 서 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논의 및 제언
- 참고문헌
- 영문초록

I. 서 론

현대 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들의 고독, 부양회피로 인한 경제고, 건강의 약화로 인한 고통, 역할 상실들로 인한 불안과 함께 죽음에 대한 불안의 위협 등은 향후 더욱 증가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가 사회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노년기 과업의 하나인 죽음의 문제도 아울러 관심을 끌기 시작하여 그 동안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장과정에 의해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접어들 것이고, 언젠가

는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특별히 노년기에는 친구, 배우자, 친지 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금기시 하여 입밖에 꺼내지도 않을뿐더러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희박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강해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논의는 결국 삶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노인들에게 죽음은 삶을 삶답게 가꾸는데 필요한 필수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을(조명옥, 1997) 것이다. 존재에의 불안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죽음을 준비케 함으로 삶의 질을 높여 가능한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 교육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과 과정 중에서 노년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인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제 외시키고 있음은 안타까운(강원용, 1979)일이다.

노인의 죽음의 태도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 중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많았지만 노인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태도 변화가 있었는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죽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교육을 받은 전과 후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전과 홍성지역의 노인대학에 출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죽음에 대한 불안도를 분석하고, 죽음의 준비교육을 실시한 후 죽음의 불안도 변화를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두었다.

첫째, 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도는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들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인의 죽음 준비교육이 노인의 죽음 불안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과 홍성 지역에 위치

한 3개 노인대학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의 표본구성은 아니었지만, 설문조사 규모가 정규분포를 가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기술하고 있는 각종 선형계획법을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다음의 조사과정을 거쳐서 조사가 수행되었다.

첫째, 조사 방법은 노인대학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노인들과 면접한 후,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입하는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둘째, 예비조사는 1998년 3월 29일 부터 4월 1일 까지 일반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후 질문지를 일부 수정하여 1998년 4월 4일부터 5월 4일 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법에 의한 자료수집임에도 불구하고 221부 중 169부만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응답내용을 기피하는 노인이 제외되었음이 주된 이유였다.

위의 조사과정을 거친 후 조사 대상자들에게 죽음 준비교육을 <표 1>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기존의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활성화되었지만, 노인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여 선행연구(서혜경, 1987)를 참고하여 노인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실시한 질문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특성을 묻는 7개 문항과 Collett · Lester의 FODS(Fear of Death Scale)로 죽음에

〈표 1〉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

시간	교육명	목적과 방법
1	사전조사	노인들의 특성과 죽음의 태도를 알아본다.
2	노년기-영광의 면류 관 입니다.	노년기의 특성과 적용 과업들을 소개한다.
3	죽음-끝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와 내용을 소개한다.
4	바람직한 애도	애도반응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정상적인 애도를 돕는다.(인생회고의 시간-사별 경험 나누기)
5	어떻게 죽음을 맞이 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정리케 하여 여생의 계획을 세우게 한다.(노인 자살문제 원인 토의)
6	사후 조사	비디오(생로병사의 비밀)상영후 사후조사를 한다.

관한 16개 문항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불안도를 측정하기 위해 1969년 Collett · Lester가 만든 FODS(Fear of Death Scale)를 서혜경(1987)이 번역한 도구 중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영역 당 4문항씩 총 16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의 유형을 측정하고자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16개 변수 전체의 절반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3개의 요인만을 채택하였고, 최종적으로 그룹화 된 변수들을 정리하여 3개의 요인-죽음에 대한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마다 양(+)의 값이 큰 노인일수록 해당 요인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의 값이 큰 노인일수록 해당 요인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불안의 유형 중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인자 점수를 4등분하여 '매우 두려워함, 조금 두려워 함, 두려워하지 않음, 매우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Eigenvalue값의 분포를 통해 요인(Factors)의 숫자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Eigenvalue값이 '1'보다 크면서 이전의 Eigenvalue값과 비교하여 크

게 작아지는 바로 이전의 요인의 수를 결정하면 되는데, 요인의 수가 많아지면 그 요인에 대한 의미부여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요인만을 채택하였다. '죽음 준비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같은 내용을 교육이전과 교육이후에 각각 조사하여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 설문문항 16개 전체의 스코어를 계산하여 이 스코어를 기초로 교육이전과 교육이후의 평균치의 차이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2〉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류해 놓은 것으로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거주지역 동거형태별, 용돈규모별, 생활만족도별, 건강상태별, 성격유형별 등을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로는 여자 노인이 130명으로 76.9%인 반면 남자 노인은 39명으로 23.1%로 분포되었다. 연령은 70-74세가 34.9%로 가장

〈표 2〉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응답자수	%
성별	남자	39	23.1
	여자	130	76.9
	소 계	169	100.0
연령	60-64세	9	5.3
	65-69세	38	22.5
	70-74세	59	34.9
	75-79세	43	25.4
	80-84세	13	7.7
	85-89세	4	2.4
	무응답	3	1.8
소 계	169	100.0	
교육 정도	무학	60	35.5
	초등학교졸	75	44.4
	중졸	18	10.7
	고졸	7	4.1
	대졸이상	7	4.1
	무응답	2	1.2
	소 계	169	100.0
거주 상태	자녀와 배우자	30	17.8
	배우자	42	24.9
	자녀	70	41.4
	혼자	24	14.2
	무응답	3	1.8
	소 계	169	100.0
용돈 규모	0 ~ 5만원	48	28.4
	6만원 ~ 10만원	47	27.8
	11만원 ~ 20만원	30	17.8
	21만원 이상	27	16.0
	무응답	17	10.1
	소 계	169	100.0
생활 만족	하루하루 즐겁고 아주 만족하다	34	20.1
	대체로 만족한 편이다	115	68.0
	매일 지루하게 보내고 있다	12	7.1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7	4.1
	무응답	1	0.6
	소 계	169	100.0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다	14	8.3
	건강한 편이다	54	32.0
	보통이다	33	19.5
	약간 좋지 않다	59	34.9
	매우 좋지 않다	9	5.3
	소 계	169	100.0

많았고, 75-79세가 25.4%, 65-69세가 22.5%, 80-84세가 7.7%, 60-64세가 5.3%, 85세 이상이 2.4%의 순으로 나타나 60세 이상의 노인중에도 중간 연령층인 70대 노인이 노인교육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수준은 초졸이 44.4%, 무학이 35.5%를 차지하고 있고, 중졸이 10.7%, 고졸과 대졸 이상이 각각 4.1%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자녀와 사는 노인이 41.4%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와 사는 노인은 24.9%, 자녀와 배우자 모두 함께 사는 노인은 17.8%인 반면 독거 노인도 14.2%로 나타났다. 용돈 규모는 11-20만원을 사용하는 노인은 17.8%, 21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노인은 16%로 나타났고, 56.2%가 10만원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68%의 노인이 대체로 만족, 20.1%의 노인은 아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일 지루하게 지내는 노인이 7.1%, 사는 것이 지긋지긋한 노인이 4.1%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는 노인이 40.3%이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이 대부분이었다.

2. 죽음의 불안에 관한 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죽음에 대하여 느끼는 불안의 유형에 관한 분석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서 살펴 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죽음에 대한 태도조사 16문항이며, 상세한 내용은 <표 3>에 기술되어 있다. <표 4>에서는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Eigenvalue값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Eigenvalue값의 분포는 요인(Factors)의 숫자를

〈표3〉 죽음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 : 회전후의 인자부하량

요인분석에 사용된 문항들	Factor1	Factor2	Factor3
1.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죽음을 피하고 오래 살고 싶다.	0.01196	0.50887	-0.03062
2.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죽는다면 많은 슬픔을 느낄 것이다.	0.69916	0.05559	0.14197
3. 아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죽음에 대해 불안을 느낄 것이다.	0.72244	0.14229	0.04484
4. 병들고 아픈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싫다	0.03090	0.35306	0.49829
5. 만약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죽는다면 나는 슬픔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0.02063	-0.14372	0.60285
6. 만약 친구가 곧 죽어 가는 것을 안다면 그 사실을 친구에게 말할 것이다.	-0.06688	0.10875	0.71339
7. 만약 내가 죽으면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0.10288	-0.09669	0.39048
8. 내가 죽은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진다.	-0.10369	0.72484	0.19997
9.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0.43050	-0.24310	0.03935
10. 내가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들이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었으면 한다.	0.37179	-0.07716	0.31703
11. 죽음을 앞둔 친구가 나에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나는 무서울 것이다.	0.34092	0.63669	-0.08125
12. 죽은 사람을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싫다.	0.58572	0.19910	-0.07750
13. 죽어 가는 친구가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는 모습을 안 보았으면 좋겠다.	0.75189	0.06282	0.07950
14.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고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두렵다.	0.40223	0.36181	-0.14559
15. 내가 죽으면 가족과 떨어진다는 것이 두렵다.	0.22401	0.74159	-0.12622
16. 내가 죽을 때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죽을까 겁이 난다.	0.56187	0.33900	-0.09678

결정해 주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Eigenvalue값이 '1'보다 크면서 이전의 Eigenvalue값과 비교하여 크게 작아지는 바로 이전의 요인의 수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대체적으로 요인의 수를 2~3개 정도로 정하는 일이 흔하다. 왜냐하면 요인의 수가 많아지면 그 요인에 대한 의미부여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며 의미부여가 되지 않는 무모한 요인의 채택은 삼가야 할 주의사항이 되고 있다.

인자의 특성을 규정짓기 위해서는 변수별로 각 인자의 값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어

는 변수가 어느 인자의 특성을 많이 지니고 적게 지니고 있는지를, 또는 어느 인자의 특성도 지니고 있지 않은지를 수량으로 나타낸 값이 인자부하량인데 이러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인자해나 주성분해로서 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주인자해나 주성분해로서 구하여진 초기의 인자부하량값 그대로는 인자의 특성을 규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각 변수들이 가지는 인자의 특성을 규정짓기 위해서 인자회전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varimax방식을 택하였다. 인자를 회전하게 되면 요인의 특성을 극대화될 수 있으며, 하나의 요인에 높이 적재하는 변수의 수를 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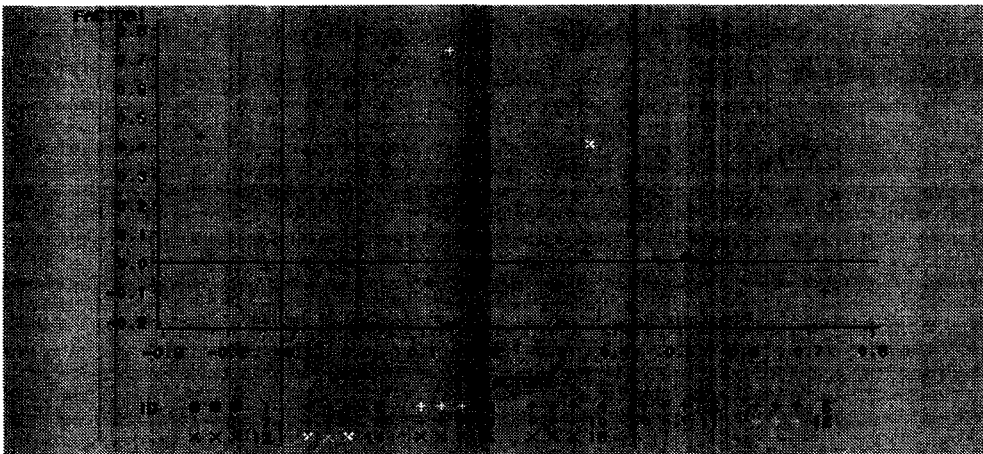
수가 있어서 해석이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의미부여의 명확성을 위해서 가능한 적은 수의 요인을 정한다는 기준 하에 3개의 요인만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3개의 요인(Factors)은 전체 분산 중 총 41.88% 정도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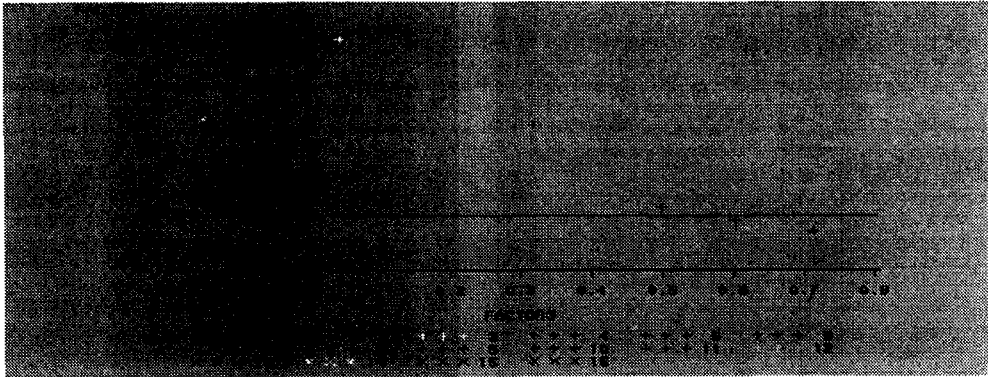
력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 공통성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16개 변수 중에서 7개 변수의 분산 값을 50% 이상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개라는 적은 수의 요인으로 16개 변수 전체의 절반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결과였다.

〈표 4〉 죽음에 대한 태도 : Eigenvalues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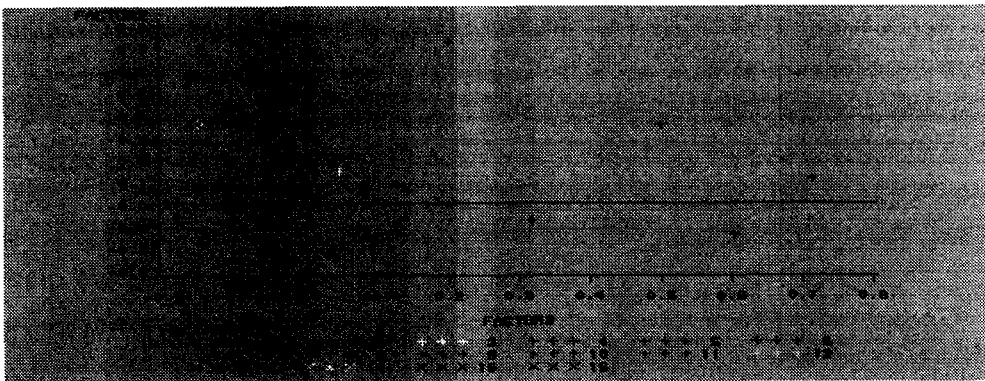
요인 (Factor)	고유치 (Eigenvalue)	차이 (Difference)	비율 (Proportion)	누적비율 (Cumulative)
1	3.4788	1.74613	0.217427	0.21743
2	1.7327	0.24267	0.108294	0.32572
3	1.4900	0.28192	0.093127	0.41885
4	1.2081	0.17238	0.075507	0.49436
5	1.0357	0.04166	0.064733	0.55909
6	0.9941	0.13154	0.062130	0.62122
7	0.8625	0.04633	0.053909	0.67513
8	0.8162	0.06436	0.051013	0.72614
9	0.7519	0.02835	0.046991	0.77313
10	0.7235	0.06530	0.045219	0.81835
11	0.6582	0.12918	0.041137	0.85949
12	0.5290	0.04150	0.033064	0.89255
13	0.4875	0.04793	0.030470	0.92302
14	0.4396	0.00779	0.027475	0.95050
15	0.4318	0.07155	0.026988	0.97748
16	0.3603		0.022516	1.00000



〈그림 1〉 회전후의 FACTOR1과 FACTOR2의 분포도



〈그림 2〉 회전후의 factor1과 factor3의 분포도



〈그림 3〉 회전후의 factor2와 factor3의 분포도

〈표 5〉 요인분석 결과

Factor	요인분석에 사용된 문항들
Factor1 (죽음에 대한 슬픔)	13. 죽어 가는 친구가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는 모습을 안 보았으면 좋겠다. 2.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죽는다면 많은 슬픔을 느낄 것이다. 3. 아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죽음에 대해 불안을 느낄 것이다. 12. 죽은 사람을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싫다.
Factor2 (죽음에 대한 두려움)	15. 내가 죽으면 가족과 떨어진다는 것이 두렵다. 8. 내가 죽은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진다. 11. 죽음을 앞둔 친구가 나에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나는 무서울 것이다.
Factor3 (죽음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	6. 만약 친구가 곧 죽어 가는 것을 안다면 그 사실을 친구에게 말할 것이다. 5. 만약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죽는다면 나는 슬픔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7. 만약 내가 죽으면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그룹화 된 변수들을 정리해 보면 <표 5>와 같다. 즉 Factor 1은 '죽음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Factor 2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Factor 3은 '죽음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Factor마다 양의 값이 큰 노인일수록 해당 Factor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음의 값이 큰 노인일수록 해당 Factor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불안의 유형 중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인자점수(Factor Score)를 값의 크기 순으로 4등분하여 '매우 두려워 함', '조금 두려워 함', '두려워하지 않음', '매우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개인의 일반적 특성 및 개인의 성격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3.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효과 분석

죽음준비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같은 내용을 교육이전과 이후에 각각 조사해 보았다. 분석방법은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죽음에 대한 태도조사 설문문항 16개 전체의 스코어를 계산하여 이 스코어를 기초로 교육이전과 이후의 평균치의 차이에 대한 t-test 검정을 하였다.

t-test 검정은 두 집단 간의 평균치의 차이를 검정하는 통계방법으로 평균치의 차이가 표본

추출상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인지 아니면 모집단간의 구조적인 차이가 표본에서의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따라서 양(+)의 값이 산출되면 교육의 효과가 인정되는 결과이며, 반대로 음(-)의 값이 산출되면 교육의 효과가 부정적으로 인정되는 결과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분석결과<표 6>, 대전시의 A노인대학을 제외하면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죽음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시의 A노인대학의 경우는 p-value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증명할 수는 없었다. A노인대학은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과 내용에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내용 즉 배우자의 사별에 적응하는 문제, 노년기의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준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B, C 노인대학의 교육 효과와 비교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외의 홍성군 B노인대학과 대전시 C노인대학의 경우는 교육이전보다 이후의 평균치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p-value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교육을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의 효과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죽음준비교육을 받기 이전과 비교하여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결과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죽음이라는 주제를 기피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 교육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표 6〉 죽음준비교육의 효과분석

구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d.f.	prob> t
A노인대학	교육이전	46.4	8.199	-0.2947	62.4	0.7692
	교육이후	45.8	9.271			
B노인대학	교육이전	43.3	8.945	2.6296	166.5	0.0094
	교육이후	46.7	8.078			
C노인대학	교육이전	47.6	8.827	2.9363	116.6	0.0040
	교육이후	52.3	8.446			

※ t 통계량은 교육이전과 교육이후의 분산 값이 다르다는 가정 하에서 구한 수치임.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대학에서 학습하는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노인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그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이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죽음의 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부정과 긍정 즉 부정적 태도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긍정적 태도는 자신의 종말을 자각하고 죽음에 대비하여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재 한국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경향으로 연구결과(김귀분, 1977; 김태현·손양숙, 1984; 김혜련, 1991; 양혜정, 1992; 윤남숙, 1994)가 나타나고 있다. 즉 죽음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장미란, 1981; 서혜경, 1987; 이순분, 1992) 노인의 죽음의 태도와 배경 변인과의

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죽음 불안을 나타낸다는 연구보고(김인자, 1984; 서혜경, 1987; 조지연, 1989)가 있는가 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죽음에 대하여 불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보고(김태현·손양숙, 1984; 김혜련, 1991; 윤남숙, 1994)도 있다. 그러나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힌 연구(박재현, 1989; 김대복, 1992; 양혜정, 1992)도 있다.

둘째, 연령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로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연구보고(서혜경, 1987; 박재현, 1989; 김혜련, 1991; 윤남숙, 1994)가 있는가 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의 불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보고(김태현·손양숙, 1984; 조지연, 1989)도 있다.

셋째, 종교와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로 종교인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연구보고(유계주, 1974; 김태현·손양숙, 1984; 윤남숙, 1994)가 있는가하면, 종교인이 더 두려워한다는 연구보고(안희만, 1988; 조지연, 1989)도 있다. 그러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힌 연구(장미란, 1981; 김혜련, 1991)도 있다.

또한 종교별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지만 죽음을 긍정적으로 나타낸 종교는 서양종교군-동양종교군-기타 순이라는 연구보고(김태현·손양숙, 1984; 이효경·김광일, 1985; 윤남숙, 1994)와 반대로 죽음 불안도가 서양종교군-동양종교군-무종교군순으로 높게 나타난 연구보고(조지연, 1989)도 있다. 그중 대부분의 연구가 기독교인이 가장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넷째, 교육수준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계에 관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불안이 낮다는 연구보고(김귀분, 1977; 박재현, 1989; 조지연, 1989; 김혜련, 1991)가 있는가 하면, 교육수준이 죽음의 불안과는 역상관 관계라는 연구보고(이효경·김광일, 1985)도 있다.

다섯째, 건강수준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건강이 양호할수록 죽음의 불안도가 낮다는 연구보고(조지연, 1989; 양혜정, 1992)가 있는가 하면, 죽음의 불안이 건강수준과 상관없다는 연구보고(장미란, 1981; 서혜경, 1987; 김혜련, 1991)도 있다.

여섯째, 경제수준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연구보고(조지연, 1989; 김혜련, 1991)가 있는가 하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죽음의 불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보고(김태현·손양숙, 1984; 윤남숙, 1994)도 있다. 김태현·손양숙 연구의 생활정도별로 제 요인 분석에 의하면, 상류층 노인은 심리적 요인이, 중류층 노인은 가축환경적 요인이 그리고 하류층 노인은 신체적 요인이 죽음에의 태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고 연구에 따라 부

정과 긍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연구 대상의 노인이 전체 노인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안고 있어서 대개 죽음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수용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연구의 시기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태도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넷째, 노인의 성격유형에 따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결론은 내리기가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죽음 준비교육을 실시한 후 죽음에 대한 태도조사의 평균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교육을 받은 이전보다 이후에 죽음에 대한 불안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죽음 준비교육이 노인들의 죽음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매우 복잡한 영역이기에 개념화하거나 적절히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결국 죽음은 노인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의 특성과 발달과업에 맞는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와 심리적인 적응을 성취하도록 하는 죽음준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남은 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갑작스런 죽음에 직면하여 당혹스러운 인생을 맞기보다 죽음

을 의연하고 정직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할 것이다. 죽음이 삶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상의 연결된 것임을 인식하게 하여 포근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죽음 자체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영원히 사는 준비를 하면서 일생동안 실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가정 및 시설 노인들의 다양한 대상으로 노인의 죽음준비교육을 통한 죽음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군과 정상 노인군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강원용 : 죽음에 관한 묵회, 교회문제연구 제1집, 고신문제연구소, 1979
2. 고승덕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3. 김귀분 :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조사 연구, 간호학회지, 제8권 1호, 1978
4. 김대복 :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죽음의 불안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5. 김태현·손양숙 :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 노년학, 제4집, 한국 노년학회, 1984
6. 김혜련 : 노인이 지각한 죽음에 대한 불안도-유료 및 무료 시설과 재가 노인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7. 서병숙 : 노후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2호, 1989
8. 안희만 :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의식구조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9. 연제국 : 노인학교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대전시 소재 교회노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0. 윤남숙 : 노인의 성격유형과 죽음 불안도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1. 이정숙 : 죽음과 임종에 관한 개념적 이해와 그에 따르는 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12. 이효경·김광일 :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 신경정신의학, 제24권 3호, 1985
13. 서혜경 : 한·미 노인의 죽음에 관한 비교 연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14. 신유호 : 노인 묵회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5. 신중섭외 4인 : 노인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모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 제6집, 1997
16. 심동섭 : 현행 노인교실 교육의 사회교육적 고찰과 개선방안, 산업개발연구, 2집, 공주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1994
17. 조명옥 : 노인이 인식한 죽음의 의미와 준비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색 사례 연구, 노년학연구, 17권 3호, 1997
18. 市川伸一·大橋靖雄 : SASで學ぶ統計のデータ解析 I, 東京大學出版社, 1987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preparative education on the Elderly's attitude for death

Ko Seung Duk* · Kim Eun Joo* · Kim Young Kyu**

* Hyupsung University · ** Taegeonsansung Church

This study attempt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preliminary education on the Elderly's attitude for death and to present basic data for the death-preliminary educ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by administerial the questionnaire interview with 169 the elderly who was 200 the elderly over 60 year old in silver colleges. The questions was consists the awareness recognition of death, character, attitudes toward for death.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the analysis were t-test, factor analysis.

The results were the follow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the fear of death 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elderly, but the old women felt more anxiety than old men. Especially, more aged, unhealthy the elderly felt it more and the lower educated or the single felt it more severely.

The change in the attitude for death:

They attitude for death was considerably changed after the preliminary education. Fears and anxiety about death were more reduced and the inevitability of death was accepted positively. This result showed the influence of the preliminary death education had positive affliction of the elderly's attitude for death. Accordingly, with the practice of the preliminary education we can release the elderly from the fear for death and guide them to live meaningly.